

한국에도 이제 해양심층수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오래전부터 해양심층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심층수 생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품들을 수입, 고가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 있으나 한국도 동해 권을 중심으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막 걸음마를 떴고 있다.

해양심층수라면 적어도 바다 아래 몇 백m 깊은 계곡을 흘러 다니는 물로, 우선 오염돼있지 않고 표층수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층수에 비해 온도가 아주 낮다.

태고 적부터 남북극의 빙하에서 녹아나온 차가운 물이 그 무게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갈아앉아 바다 밑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것인데, 그 물길에 지구물 한바퀴 돌면서 표층으로 올라오는 세월은 몇 천 년에 이른다.

예부터 심층수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곳에는 신선한 먹이가 많아 고기들이 몰려 큰 어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라 한다.

과히 천년의 물이라 할만 하며 생명의 물이라 할 만하다.

심층수는 사람이 마실 생수생산뿐 아니라 농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천년의 물 해양심층수

수축산 분야, 건강 의료분야,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에도 두루 활용된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면 심층수를 끌어 올려 한대성 어류를 양식할 수도 있고 여름 더위를 애어컨 대신 심층수를 끌어들이어 식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마운 자원을 그냥 반길 수만은 없다.

심층수를 받기는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의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우리는 '생명수'라 한다. 사람 몸 속 구성 성분 가운데 70% 이상이 물이라니 그 '생명수' 없으면 죽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또한 태고에 바닷물과 빙과의 교류가 생명 출현의 신비한 인연이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물은 생명의 모성(母性)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징성 풍부한 물은 이렇게 생명의 상징이면서 한편 종교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 죽음과 저승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 우물에서 떠 온 정화

수 한 그릇이 그 영성이며 불교의 관정(灌頂)의 식, 기독교의 세례도 물의 영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의 상징성은 동서양이 또한 다르지 않다. 고대 동서양 어디서나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강이 등장했다. 고대 그리스 저승 수문장에 해당하는 뱃사공 카론이 죽은 자를 건너 주는 강은 스틱스 강이고, 동양권의 삼도천, 기독교에서의 요단강은 물론, 부처님이 깨달음의 피안으로 정해 놓은 곳도 차안과 물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뗏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물의 위기가 하면 바로 생명과 함께 영성의 위기가 된다.

강 호수 바다 등 물이 고여 있는 곳 가운데 신비함을 간직하지 않은 곳 어디 있을까마는 특히 바다는 짐작이 어려운 그 넓이만으로도 신비롭다.

'너무 넓거나 큰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누군가 말했었다는데, 그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종교의 영역일 것이며 바다는 종교적 신비를 간직한 그야말로 '해인(海印)'이 아닌가.

그 해인 속 깊숙이 천년을 흘러 온 심층수를 지구 오염의 마자막 대안으로 사람들이 지금 끌어 올리고 있다.

이를 어찌 반기기만 할 수 있겠는가.

불자의 눈

3월, 소생과 악몽으로 상징되는 3월을 맞는 불교계도 분주하다. 각 종단이 올 한 해를 어느 해 보다 보람 있게 장식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사이 각 종단 수장들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올 한해 종단 운영의 기초를 밝혔다.

조계종은 '수행과 전법'을 대전제로 △총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운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 하는 수행 종가 등의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20대 핵심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도 수행풍토 확립과 환경 및 민족 화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천태종은 종조인 상월왕각대조사의 탄신 100주년(2011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기념사업회 발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각문화전승관 착공과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한 사업으로 한해를 연 진각종은 포교 교육 복지 문화장달 등 4대 정책 기초를 유지하며 종단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창종 정신의 재발견과 자주적 계

각 종단의 주요 정책 기초

발표는 끝나고 실천만 남았다

승'을 올해 종단운영의 모토를 삼았다는 진각종은 북한과 해외교류 사업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월 13일 불교전통문화전승관 삼존불 점안법회에 맞춰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태고종은 종단개혁과 덕화의 중무행정 구현을 종단 운영의 기초로 꼽았다. 3명의 부원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종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음종은 '교육불사'를 통한 종단 발전의 방향잡기를 공표했다. 4월에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을 개교하며 종단 차원의 교육불사 의지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의지다. 관음종의 교육불사는 승가의 교육과 재가 교육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주요종단들이 내놓은 올해의 종단 운영 지표는 크게 '내실 다지기'와 '대사회 활동의 강화'로 묶을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기도 하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정치권과 민심이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 불교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불교계가 '큰 산'처럼 중심을 잡고 세상을 지킬 수 있어야 정치 경제적 혼란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불 배 지나치게 종단 안쪽 살림만 챙겨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세속 살림살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여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 종단이 신년 벽두에 내놓은 정책들이 내 놓은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와 '대사회활동의 강화'를 이루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각 종단의 내부적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이렇게 들었다

명절증후군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집야합경>

정해진 설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즐거움 시간 가지셨는지요.

하지만 이른바 '명절증후군'이라 부르는 후유증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한 포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주부들에게 명절은 이제 육체와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명절 음식과 손님 치르기 등 끝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 때문입니다.

'명절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장시간 운전 에 지친 남편이나 화염·취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 친척들과 여러모로 비교하다보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게다가 요즘은 사부모들까지 명절증후군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처럼 북적거리던 자식들이 차례를 지내자마자 우르르 떠나버린 빈집에서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물론 명절을 지내는 일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생각' 바꾸는 데서

따뜻한 격려와 마음의 배려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당신 덕분에 명절이 즐거웠다'고 인사를 건네 보면 어떨까요?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재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아난사불기흥경)'이니까요.

■ 여수영(해례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전통사찰 조경 '자연'에 맞게...



사찰생태연구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 108개 주요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돌아보고 느낀 점은 사찰의 고유한 생태경관(生態景觀)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찰은 전통적으로 산중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절로 가는 길은 어디나 숲길이었다. 그 숲길은 번잡(煩雜)의 세계에서 명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길이요,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 가는 길이다. 사찰의 숲길은 누구에게나 '거닐고 싶은 숲길'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사찰 숲길이 개발시대에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속도와 기능'을 요구받던 눈에 띄게 파괴되고 있다. 부드럽게 굽이 돌던 숲길은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자꾸만 직선화되고, 더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숲길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길은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뒤덮였다.

전통사찰은 주변의 생태계가 고유성을 지닐 때 비로소 참다운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의 사찰 주변 식생현황은 매우 부정적이다. 일제강점기 때 녹화사업용으로 들어온 귀화수종인 아카시나무, 리기다 소나무, 일본잎갈나무들은 어느 사찰림에서나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찰 경내에 조경된 나무들도 외래수종이나 원예종들이 우리 고유나무들을 밀어내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가이즈가 향나무, 중국단풍, 노무라단풍, 튜립나무, 철쭉, 일본목련, 스토브라 잣나무, 일본 연산홍..... 이런 수종들은 조경업자들이 편의위주로 권한 것을 사찰측에서 무분별하게 가져다 심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은 전통적인 경관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 전통경관은 우리 고유의 식생일 때만 가능하다. 외래수종들

이 자생수종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문화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본류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 당국이 사찰 진입로 주변 화단에 심어놓은 초본들도 거의가 외래 원예종 일색이다.

전각 주변의 크고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초본들도 어림잡아 70~80%는 시중에서 파는 외래종이거나 원예종을 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영주의 '남'사의 화단은 모두가 외래원예종 일색이다. 법당의 불단이나 스님들의 방에도 예외 없이 외래 서양관 일색이다.

삼업 대중적 가치에만 비중을 둔 조경도 문제가 심각하다. 고층의 '스'사와 영광의 '남'사 등 남도의 몇 군데 고찰에서는 지자체 당국 관공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사화(꽃무릇) 천지조 만들어버렸다. 그 바람에 다른 야생화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이것은 자연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또다른 생태폭력이다. 관광개발도 좋지만, 그들이 생태적인 마인드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와 함부로 재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다. 답장 밖으로는 망초, 달맞이꽃, 미국자리공, 개자리, 돼지풀, 평반대 등 귀화식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귀화식물들의 특징은 지나친 불사 등으로 고유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만을 찾아난다.

귀화식물들은 고유한 자생식물들을 내쫓고 들과 산을 무성하게 점령해가고 있어서 생태계 교란과 훼손이 매우 염려스럽다.

이제는 전통과 수행에 맞는 조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불교전통 수목원이나 불교전통 조경연구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조채희(사찰생태연구소 사무국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왕복사
- 창건주 : 철안(정봉화)
- 소유권자 및 상속자 대표 : 정영도
- 주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08번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인 무효공고

- 사찰명 : 왕복사
- 창건주 : 철안(정봉화)
- 소유권자 및 상속자 대표 : 정영도
- 주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08번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3번지

위 사찰의 주지직인 및 왕복사 직인은 2006년 9월 17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바(秘法)가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 친족, 연족 연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끝이런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